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6. 9. 15.(화)

재외동포 청년 56명, 한국에서 취업·창업의 길 찾는다

- 재외동포청, 17개국 청년 대상 취업·창업 맞춤형 모국 연수 진행
- 취업·창업반 나눠 진로 상담부터 기업 현장 방문까지...

- 전 세계 17개국에서 온 재외동포 청년 56명이 한국에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과 창업 계획을 구체화한다.
- 재외동포청(청장 김정협)은 14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‘2026년 차세대동포 모국초청 연수(청년4차 - 취·창업 설계 연수)’ 개최식을 열고 4박 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.
 - 참가자들은 희망 진로에 따라 취업반 34명과 창업반 22명으로 나뉘어 각 분야에 맞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.
- 연수 기간에는 개인별 진로 상담을 시작으로 한국에 정착한 선배 동포와의 대화, 유망 스타트업과 서울경제진흥원(SBA)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취업과 창업 환경을 직접 살펴본다.
 -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‘취업반·창업반 우수성과 발표회’를 열어 참가자들이 연수 기간 구체화한 취업·창업 계획을 발표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.
- 이번 연수는 프로그램 참여에 그치지 않고 청년 동포의 취업·창업 지원 정책과도 연계한다. 재외동포청은 참가자들이 제기한 정책 질의와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앞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.
 - 연수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류와 멘토링을 이어갈 예정이다.

□ 김정협 재외동포청장은 “모국으로 돌아오는 재외동포 청년들은 한국 경제를 더 크게 만들 소중한 자산”이라며 “이번 연수가 각자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붙임 2026 차세대 모국 초청 청년 4차 연수 개회식 사진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차세대동포과	책임자	과 장 김채영 (032-585-3213)
		담당자	서기관 이현준 (032-585-3217)

